

강원 영서지방 향교건축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yout and Floor Plan of Hyangkyo Architecture at Youngseo districts in Gangwon-do

임 상 규* 채 희 재**
Rim, Sang-Kyu Chai, Hee-Jai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layout and floor plan at Hyangkyo Architecture in Youngseo districts of Gangwon-do. Hyangkyo which were the institutional places of Chosun Dynasty used for stability and order of the dynasty as well as for the education of people. This thesis studies and analyzes the regularity which appears in the formation of architecture mainly in the aspects of layout, plane formality. Jeon-hak-hoo-myo is the arraying formality in which Myungryundang and Daesungjun are placed on a line of one axis with Myungryundang placed lower in the front and Daesungjun place higher in the back and this formality is applied for a land that slopes. The layout formation of Gangkak space is divided into Jeonjaehudang-type and Jeondanghujae-type.

This study analyze arrangement type and plane characteristics about local old time school belonging to the Confucian shrine construction at Youngseo districts in Gangwon-do, there is purpose of research to wish to clear the regional special quality of local old time school belonging to the Confucian shrine construction at Youngseo districts in Gangwon-do.

키워드 : 향교건축, 배치유형, 평면, 영서지방, 지역적 특성

Keyword : Hyangkyo Architecture, Layout Type, Floor Plan, Youngseo Districts, Local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향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교는 지극히 규범적이고, 의식적인 사상으로 당시 유림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적 배경이 향교건축의 공간구성 원리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향교는 시대별로 제향(祭享)과 강학(講學)기능 중 어떠한 기능을 위주로 하였느냐에 따라 배치형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건립 초기의 향교건축은 유교이념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문묘(文廟)가 존재했지만 이후에는 제향기능(祭享機能)을 위해 향교의 시설을 필요로 하면서 공간구성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유학사상을 통치이념화하면서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 등 정형적인 향교건축의 배치형식이 이루어진 듯하며, 중기에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관학보다는 사학인 서원(書院)위주로 학맥(學脈)을 형성함으로써 관학교육이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고 봉당정치가 전개되면서 선현(先賢), 선사(先師)를 문묘에 봉사(奉祀)하는 등 서원(書

院)과 유사한 배치형식이 이루어졌다.¹⁾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 및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²⁾의 후속연구로 강원도 영서지방의 향교건축에 대한 공간구성의 관련 요소를 분석하여, 강원도 영서지방의 향교건축이 갖는 지역특성을 밝혀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강원도에는 현재 16개의 향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영서지방에 위치한 향교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정선, 영월, 평창, 철원, 양구, 화천, 인제향교로 11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철원향교는 최근(2010. 4. 21)에 옛 철원향교 위치가 아닌 곳에 이전·신축되어 현재 다양한 제례행사와 청소년 인성교육·한문 예절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대상 향교는 조선시대 강원도 군현체계에서 3개의 권역 가운데 원주목, 춘천도호부에 속하는 원주, 춘천, 정선, 영월, 평창, 인제, 횡성, 홍천향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0년 5월에서 7월까지 조사하였다.

* 정희원,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강사, 공학박사
(교신저자: heejichai@paran.com)

1) 도용호의 1인, 유학적 질서규범에 의한 향교건축의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7호, 1995. 7, p.82

2) 임상규의 1인, 강원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4호, 2010.11, p.53

연구대상을 영서지방으로 선정한 이유는 강원도의 경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문화권과 영서문화권으로 크게 분류되어 지역문화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강원도 영서지방에 위치한 8개 향교에 관련된 문헌 및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치유형 및 평면형식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대부분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2. 강원 영서지방 향교건축의 현황

2.1 대상향교의 지역적 배경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언급된 강원도의 군현체계를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은 1부(府), 1목(牧), 5도호부(都護府), 7군(郡), 12현(縣)의 체계로 되어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³⁾

- 강릉대도호부/삼척도호부/양양도호부
 - 평해군/간성군/고성군/통천군/울진현/흡곡현
- 원주목/춘천도호부
 - 정선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횡성현/홍천현
- 회양도호부/철원도호부
 - 금성현/양구현/낭천현/이천현/평강현/금화현/안협현

조선시대의 강원도 군현체계에서 강원도는 크게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영서지방은 주로 원주목, 춘천도호부 산하에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횡성현, 홍천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원주(原州)는 원래 고구려의 평원군으로 신라 문무왕 때 복원소경을 두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원주로 개칭하여 원종 10년(1269)에 정원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충렬왕 34년(1308)에 원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춘천(春川)은 원래 백국의 수도였으며, 신라 선덕왕 6년(637)에 우수주라 하여 군주를 두었다. 문성왕 13년(673)에 주약주로 개칭하고 경덕왕 때 삭주로 고쳤다가 후에 광해주로 고쳐 불렀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춘주라 불렀으며, 조선 태종 13년(1413)에 춘천으로 고쳐 군으로 하였다. 2년 후에는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1895)에 관찰부가 되었다.

정선(旌善)은 원래 고구려의 잉매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정선현으로 개칭하여 명주의 영현으로 있었다가 고려 현종 9년(1018)에 속현이 되었다가 이후 몇 차례 변천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영월(寧越)은 원래 고구려의 내생군으로 신라 덕흥왕 때 내성군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대 영월현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중기인 숙종 22년(1696)에 영월부로 승격되었으며, 조선 말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이 되었다.

평창(平昌)은 원래 고구려의 옥오현으로 신라 대 백으로 고치고, 나성군의 영현으로 두었다. 고려 대에 평창으로 개칭하고, 조선 태조 원년(1392)에 목조 효비의 고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하고, 그 후 몇 차례 변천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제(麟蹄)는 고구려 때에 저족현으로 불리웠다가 신라 영토가 되면서 회제라 고치고 양록군에 귀속되었다. 고려 대에 인제라 개칭하고 고려 공양왕 원년(1389)에 감무를 두었고, 조선 태종 13년(1413)에 현감을 두었으며, 고종 32년(1895)에 인제군으로 현재에 이른다.

횡성(橫城)은 본래 고구려의 횡천현으로 신라 때에 황천으로 고쳐서 삭주의 영현으로 하였다. 이후 고려 대에 이르러 횡천으로 개칭하고, 후에 원주로 속하게 된다. 조선 태종 13년(1403)에 현감을 두고, 이듬해 횡성으로 고쳐 불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천(洪川)은 원래 고구려의 벌력천현으로 신라 때에 녹효로 개칭하고 삭주의 영현으로 두었다. 이후 고려 대에 홍천으로 개칭하였고, 인종 21년(1142)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2.2 대상향교의 연혁

원주향교의 창건은 고려 말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고증할 문헌자료는 없다. 조선 세종 4년(1422)에 중건하였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3년 대성전, 1609년 명륜당을 각각 중수(重修)하였다.

춘천향교의 창건 연대는 고증할 만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개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몽인의 어간집에 기록된 상량문을 보면 중종 15년(1520)에 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선향교는 예종 5년(1110)에 창건되었으며, 선조 38년(1605)에 홍수로 유실되자 석교양구에 모옥수간을 건립하고 위패를 봉안하고 후학을 배출했다. 광해군 3년(1611)에 삼봉산 아래 이전하였다가 현종 2년(1661)에 산의 서쪽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숙종 8년(1682)에 중건하였고, 영조 8년(1732)에 비로소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건물들을 완성시켰다. 그 후 수차례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월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하였으며, 선조 때 개축 및 중수, 중창을 하였다. 이어 광해군 9년(1617)에 개조하였고, 숙종 3년과 정조 19년에 각각 중수를 한 후 순조 25년(1825)에 중수된 건물이다. 그 뒤 재건과 중수, 해체 복원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평창향교는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 후 영조 5년(1729)에 중수를 하였고, 1950년 6·25 전쟁으로 파괴, 소실된 것을 연차적으로 중수,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제향교는 광해군 2년(1610)에 창건되었다고 추정하고

3)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의 향교건축, 유교건축총서 제2집, 2001, p.2

있으며, 당시 인제군 상동리에 위치하였으나 1930년 수해로 현 위치로 옮겨졌다. 6·25동란으로 대성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소실되자 1958년 대성전을 보수하고, 명륜당과 동·서재를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횡성향교는 조선 태조 때(1398)에 창건하였다는 사적고증이 된다는 기록이 1979년 발간된 횡성향교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고증의 실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1398년 창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뒤 여기 저기 이전하다가 200년 전에 북천에서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고 향교지에 기록되어 있다.⁴⁾

3. 사례분석

3.1 대상향교의 배치특성

(1) 원주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원주는 목(牧)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주향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 단에 외삼문과 동재와 서재를 두고, 낮게 축조된 둘째 단에서의 중심에는 명륜당을 배치하고 있다. 그 다음 셋째 단에는 내삼문과 동무·서무를 대칭으로 위치시키고, 그 중심에 양무와 중첩하여 대성전을 배치하고 주 건물들이 일축선형을 이루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재후당(前齋後堂)형으로 명륜당이 후면에 위치하고 동·서재가 그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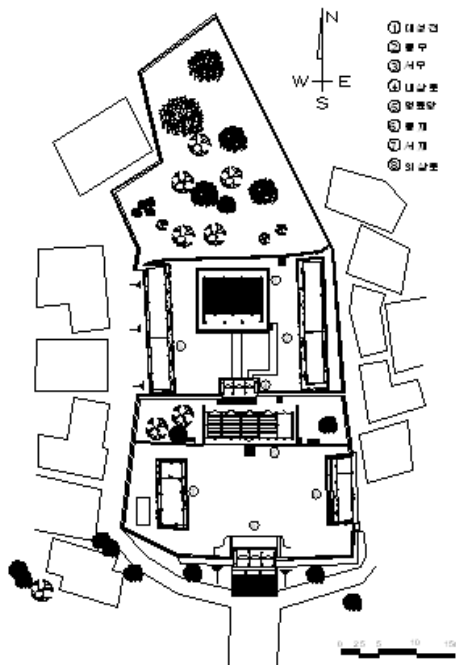


그림 1. 원주향교의 배치도

(2) 춘천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춘천은 도호부(都護府)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춘천향교는 지형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 단에 홍살문과 관리사, 비각을 두고, 둘째 단에는 외삼문을 겸비한 장수루(藏修樓)를 설치하고, 그 뒤 좌우에 동재와 서재 그리고 중심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있다. 그 다음 셋째 단에는 내삼문과 동무·서무를 대칭으로 놓고, 그 중심에 대성전을 배치하여 대성전과 명륜당이 일축선형을 이루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재후당(前齋後堂)형으로 명륜당이 후면에 위치하고 동·서재가 그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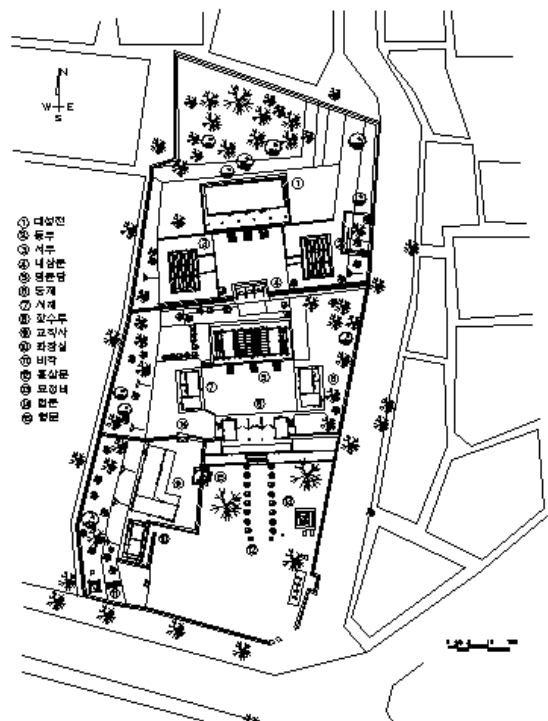


그림 2. 춘천향교의 배치도

(3) 정선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정선은 군(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선향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 단의 중앙에 외삼문을 두고, 좌측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뒤 좌우에 동재와 서재 그리고 중심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있다. 그 다음 둘째 단에는 명륜당 양측면에 담장과 연결하여 내삼문 기능의 협문을 각각 두고 있다. 그리고 그 후면에 동무·서무를 대칭으로 놓고, 그 중심에 대성전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성전 양측면에는 제기고와 숙청실을 설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축선형을 이루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다.

4) 강원도,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 1992, p.121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재후당(前齋後堂)형으로 명륜당이 후면에 위치하고 동재와 서재가 서로 대칭되어 배치되지 않고, 동재가 동쪽 편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 서재는 전면 남측으로 교직사 영역과 구분되는 담장을 두어 배치유형 자체가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정선향교의 배치도

(4) 영월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영월은 군(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월향교는 다소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지형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째 단에는 외삼문을 겸비한 풍화루(風化樓)를 설치하고, 좌측 모서리 부분에는 담장의 기능을 겸한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 뒤 좌우에 동재와 서재 그리고 중심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있다. 그 다음 둘째 단에는 내삼문을 설치하고 그 뒤 좌우측에 대칭으로 동무와 서무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성전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일축선형의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재후당(前齋後堂)형으로 명륜당이 후면에 위치하고 동·서재가 그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4 참조).

(5) 평창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평창은 군(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창향교는 높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째 단에 외삼문의 기능을 갖는 풍화루(風化樓)를 두고, 그 후면에 동재·서재를 설치하지 않고 좌측으로 담장에 면하여 강의실과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축에서 벗어나 우측 담장에 면하여 대성전과 직각으로 직교축을 이루며 명륜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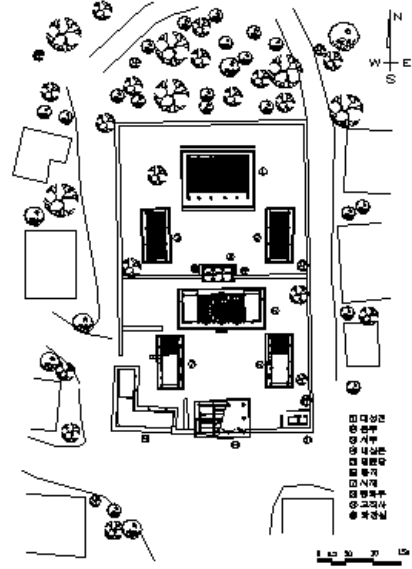


그림 4. 영월향교의 배치도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단에는 내삼문과 동무·서무를 대칭으로 설치하고, 그 중심에 대성전을 배치하는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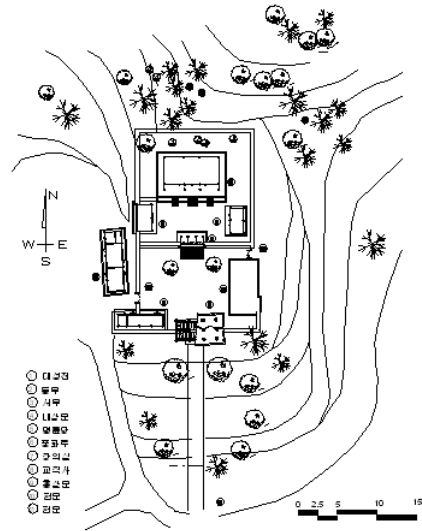


그림 5. 평창향교의 배치도

(6) 인제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인제는 군(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제향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정지한 후 남서향으로 그 첫째 단에는 외삼문 기능을 겸비한 영소루(靈昭樓)를 설치하고, 계단을 올라 조성된 둘째 단에는 좌우측에 동재와 서재 그리고 중앙에 명륜당을 중첩하여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셋째 단에는 내삼문을 설치하고 그 후면에 동무·서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심에 대성전을 설치하여 주 건물이 일축선형을 이루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제후당(前齋後堂)형으로 명륜당이 약간 후면에 위치하고, 동·서재가 그 측면과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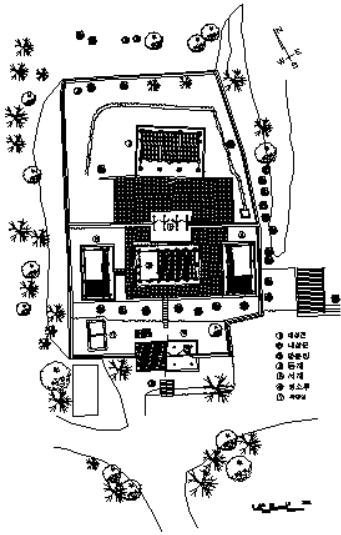


그림 6. 인제향교의 배치도

(7) 횡성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횡성은 현(縣)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횡성향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높게 축조된 첫째 단에는 외삼문 기능을 겸비한 누하진입식의 명륜당을 전면에 설치하고, 그 뒤로 같은 공간에 낮게 조성된 둘째 단에는 좌우측에 동재와 서재 그리고 서재 후면에 관리사를 각각 배치하고 있다. 그 다음 공간을 달리한 셋째 단에는 내삼문이 놓여 있고, 제향공간에는 동무·서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중심에 대성전을 배치하는 일축선형의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당후재(前堂後齋)형으로 명륜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동·서재가 그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영동지방과 동일한 유형을 갖고 있다.(그림 7 참조).

(8) 홍천향교

조선시대의 군현체계에서 홍천은 현(縣)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홍천향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째 단에 외삼문 기능을 겸비한 석화루(石花樓)를 건립하고, 그 뒤 좌우측에 동재·서재 그리고 중심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영역을 달리하여 관리사인 교직사를 설치하고 협문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 계단으로 높게 정지된 둘째 단에는 내삼문을 설치하고, 그 후면에 동무·서무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대성전을 배치하는 일축선형을 이루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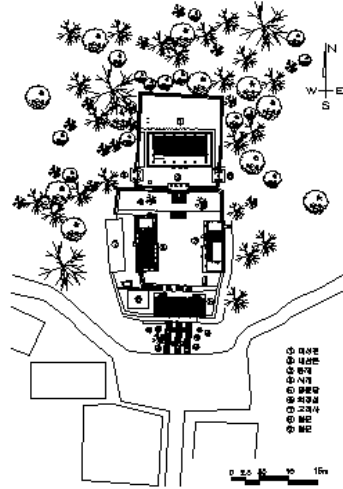


그림 7. 횡성향교의 배치도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전제후당(前齋後堂)형으로 명륜당이 후면에 위치하고 동·서재가 그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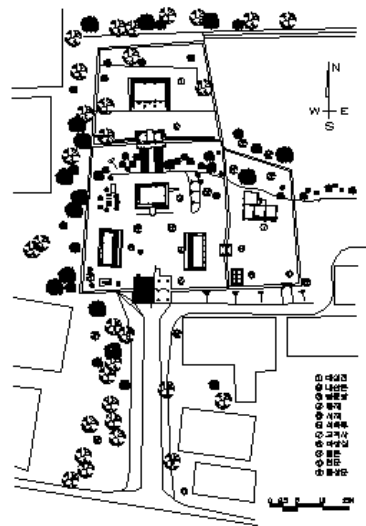


그림 8. 홍천향교의 배치도

3.2 대상향교의 평면구성 특성

전통건축의 평면은 지금과 같은 계획에 의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기능상의 요구나 재료상의 충족요건, 그리고 평면 계획상의 관습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건 중 향교건축은 주로 기능상의 요구에 의하여 평면형식이 결정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대성전의 경우 신성하고 엄숙한 참례의 공간으로 그 기능에 맞도록 평면형식이 계획되었는데 참배를 위한 공간의 설치유무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 평면으로 나누어진다.

5) 이달훈의 1인, 향교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논문집 제3집, 1983, p.181

명륜당의 경우 유교를 실천하고 배우는 실용적 공간으로서 그 기능에 맞도록 온돌방과 우물마루의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는 평면은 용도와 기능에 의해 형식과 규모, 칸수와 퇴칸의 유무 등이 평면의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1) 대성전 평면

대성전 평면은 조사대상 8개 향교 가운데 퇴칸이 있는 개방형 평면이 8개소(원주, 춘천, 정선, 영월, 평창, 인제, 횡성, 홍천)이고, 퇴칸이 없는 폐쇄형 평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성전 규모는 정면 5칸×측면 3칸이 3개소(춘천, 영월, 횡성), 정면 3칸×측면 3칸이 4개소(원주, 정선, 인제, 홍천), 정면 3칸×측면 2칸이 1개소(평창)로 나타났다.



그림 9. 평창향교의 대성전

건축적인 측면에서 성균관(成均館)이 정면 5칸×측면 4칸으로 향교건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대성전의 규모를 최대 정면 5칸×측면 4칸으로 제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대성전은 정면 3칸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이와 같은 사실에서 조사대상 향교의 대성전은 규모면에서 일반적인 향교의 대성전보다 규모가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서무 평면

동·서무 평면은 조사대상 8개 향교 가운데 퇴칸이 있는 개방형 평면이 1개소(정선), 퇴칸이 없는 폐쇄형 평면은 4개소(원주, 춘천, 영월, 평창)이고, 인제, 횡성, 홍천향교는 동·서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무 규모는 정면 7칸×측면 1칸이 1개소(원주), 정면 3칸×측면 1칸이 2개소(춘천, 영월), 정면 2칸×측면 2칸이 1개소(정선), 정면 2칸×측면 1칸이 1개소(평창)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원주향교의 경우 다른 향교에 비해 동·서무의 정면 칸수가 대성전(3칸×3칸)보다 훨씬 크게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공간규모는 동·서무가 22평(坪), 대성전은 26평(坪)으로 대성전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성전과 다르게 공자의 제자와 우리나라 선현(先賢) 등을 봉사(奉祀)하는 규모 즉, 설위(設位)에 따라서 공간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 원주향교의 전경

3) 명륜당 평면

명륜당 평면은 조사대상 8개 향교 가운데 마루형이 3개소(평창, 횡성, 홍천), 방+마루+방형이 4개소(원주, 춘천, 정선, 영월), 방+마루형이 1개소(인제)로 나타났다.

명륜당 규모는 정면 7칸×측면 2칸이 1개소(춘천), 정면 5칸×측면 2칸이 4개소(원주, 정선, 영월, 횡성), 정면 4칸×측면 2칸이 1개소(평창), 정면 3칸×측면 2칸이 2개소(인제, 홍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11. 춘천향교의 명륜당

명륜당 평면은 마루의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 방과 마루가 조합된 형이 일반적인 형식이며, 대부분 규모는 정면 5칸이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볼 때 조사대상 영서지방 향교의 명륜당 규모는 정면 7칸 이상이 1개소(춘천), 영동지방은 정면 7칸 이상이 3개소(강릉, 삼척, 양양)로 나타나 영동지방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동·서재 평면

동·서재 평면은 유생들의 학습강화와 기숙하는 공간으로 평면유형은 툇마루의 유무에 따라 조사대상 8개 향교 가운데 툇마루가 있는 것이 5개소(원주, 춘천, 인제, 횡성(동), 홍천), 툇마루가 없는 것이 3개소(정선, 영월, 횡성

6) 임상규외 1인, 강원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4호, 2010.11, p.57

7) 조원섭, 향교건축의 구성양식에 내재된 위계에 관한 연구, 대전 대학교 박사논문, 2004.2, p.54

(서))로 나타났다.

형성향교의 경우 동재의 평면형식은 방(2)+부엌+뒷마루, 서재의 평면형식은 방+마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평창향교는 동·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지역 강릉향교의 경우 동·서재 실내바닥 모두 마루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으로 나타났지만 영서지역의 향교에서는 이러한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5) 누각(樓閣) 평면

향교에 있어서 루(樓)는 향교건축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지역성을 결정짓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누각은 유생들이 여가를 즐기는 유식(遊息)공간으로 대부분 문묘영역에서 떨어져 설치되었다.

누각 형식은 이용형태에 따라 누각이 외삼문 자리에 위치하여 정문과 루(樓)의 기능을 겸비한 문루(門樓)형, 루(樓) 하부에 출입문을 두지 않는 순수한 루의 기능만 가진 독립형, 명륜당을 중층 또는 전면(前面)만을 중층으로 하여 명륜당을 누각화(樓閣化) 한 것으로 누형(樓形) 명륜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⁸⁾

조사대상 8개 향교 가운데 평면유형은 문루형이 5개소(춘천, 영월, 평창, 인제, 홍천), 누형(樓形) 명륜당은 1개소(횡성)가 해당된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輿地圖書』의 기록에 의하면 원주향교의 규모는 61칸으로 '청풍루(淸風樓)'가 있었으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⁹⁾

조사대상 향교의 문루(門樓)형 누각 규모는 정면 5칸×측면 2칸이 1개소(춘천), 정면 3칸×측면2칸이 4개소(영월, 평창, 인제, 홍천)로 나타났으며, 누(樓)형 명륜당은 정면 5칸×측면 2칸(횡성)으로 분석되었다.

표 1. 향교별 주요 건축물의 배치특성

향교명	현존 건물	지형	배치축	배치형식	강학 배치유형
원주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경사지(3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재후당형
춘천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장수루, 교직사, 비각, 홍살문, 묘정비, 협문	경사지(3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재후당형
정선	대성전, 동무, 서무, 숙정실, 제기고,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교직사, 묘정비, 홍살문, 협문	경사지(2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재후당형
영월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풍화루, 교직사	완경사지(2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재후당형
평창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풍화루, 장의실, 교직사, 홍살문, 협문	경사지(2단)	직교축선형	좌학우묘	동·서재 없음
인제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영소루	경사지(3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재후당형
횡성	대성전, 내삼문, 동재, 서재, 명륜당, 교직사, 협문	경사지(3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당후재형
홍천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석화루, 교직사, 협문, 홍살문	경사지(2단)	일축선형	전학후묘	전재후당형

8) 조영화의 1인, 향교건축에서 누의 기능과 건립상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2호, 1995.2영화의 1인, 전개서, 1995.2, pp.83~84

9)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의 향교건축, 유교건축총서 제 2집, 2001, p.111

강원도 영서지방의 향교는 대부분 문루(門樓)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영동지방의 경우 대부분 누형(樓形) 명륜당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간구성을 기준으로 향교건축의 기본을 형성하는 제향기능과 강학기능 공간에서 제향공간의 상징인 대성전과 강학공간의 상징인 명륜당의 공간구성 면적(m²)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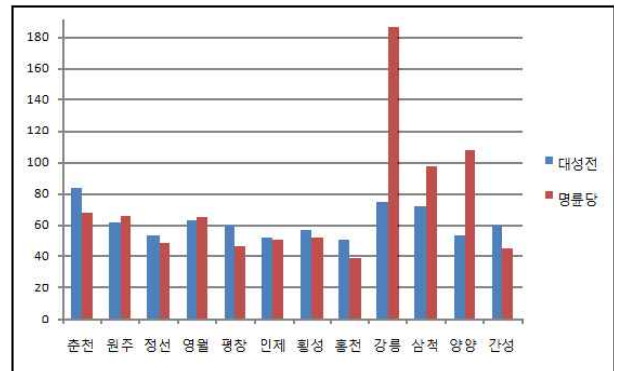


그림 12. 대성전과 명륜당의 실면적 비교

강원도 영서지방의 향교건축은 원주향교와 영월향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향교에서 대성전이 명륜당보다 실면적이 다소 크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성전의 평면유형은 모두 퇴칸이 있는 개방형 평면으로 퇴칸을 실내면적에 포함시키면 대성전이 명륜당 보다 더 크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동지방의 경우 간성향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향교에서 명륜당의 실면적이 대성전보다 월등히 더 크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향교별 주요 건축물의 평면특성

건물명	평면	원주향교	춘천향교	정선향교	영월향교	평창향교	인제향교	횡성향교	홍천향교
대성전	유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규모	3칸×3칸	5칸×3칸	3칸×3칸	5칸×3칸	3칸×2칸	3칸×3칸	5칸×3칸	3칸×3칸
동·서무	유형	폐쇄형	폐쇄형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	없음	없음	없음
	규모	7칸×1칸	3칸×1칸	2칸×2칸	3칸×1칸	2칸×1칸			
명륜당	유형	방+마루+방형	방+마루+방형	방+마루+방형	방+마루+방형	마루형	방+마루형	마루형	마루형
	규모	5칸×2칸	5칸×2칸	5칸×2칸	5칸×2칸	4칸×2칸	3칸×2칸	5칸×2칸	3칸×2칸
동재	유형	뒤틀마루(유)	뒤틀마루(유)	뒤틀마루(무)	뒤틀마루(무)	없음	뒤틀마루(유)	뒤틀마루(유)	뒤틀마루(유)
서재	유형							뒤틀마루(무)	
동·서재	바닥	온돌방	온돌방	온돌방	온돌방	-	온돌방	온돌방	온돌방
누각	유형	없음	문루형	없음	문루형	문루형	문루형	명륜당형	문루형

4. 결 론

참 고 문 헌

이상에서 살펴본 강원도 영서지방 향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련된 배치 및 평면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학공간의 건물 배치유형에서는 대부분 명륜당이 동·서재보다 뒤에 위치하는 전재후당(前齋後堂)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나타나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과 크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동지방의 현존향교는 조성시기가 창건시기보다 훨씬 늦게 조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중기 성리학의 두 가지 계통 가운데 기호학과를 집대성한 이이(李珣) 선생의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으로 강학공간에서 기호학파의 서원건축 배치유형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강학공간의 배치유형에서 강원도 영서지방의 경우 대부분 영동지방과 대조적인 배치유형을 보여 이이(李珣) 선생의 사상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건축물 가운데 누각의 경우에서도 강원 영서지방의 향교는 대부분 문루(門樓)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반면 영동지방의 경우 대부분 누형(樓形) 명륜당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향교건축의 기본을 형성하는 제향기능과 강학기능 공간에서 제향공간의 상징인 대성전과 강학공간의 상징인 명륜당의 공간규모를 비교한 결과 강원 영서지방은 대성전의 면적이 더 크게 나온 반면 영동지방은 대부분 명륜당의 실면적이 더 크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륜당의 정면칸수는 영서지방의 정면(5칸, 4칸, 3칸)이 영동지방의 정면(11칸, 7칸, 4칸)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에서 나타난 차이점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강원도,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 1992
2.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의 향교건축, 유교건축총서 제2집, 2001
3. 도용호 외 1인, 유학적 질서규범에 의한 향교건축의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7호, 1995. 7
4. 이달훈외 1인, 향교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논문집 제3집, 1983
5. 이희봉외 1인, 조선시대 사립의 서원건축 재해석: 기호학과 서원에의 가치부여, 건축역사연구 제 16권 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12
6. 임상규외 1인, 강원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4호, 2010.11
7. 조원섭, 향교건축의 구성양식에 내재된 위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04. 2
8. 조영화외 1인, 향교건축에서 누의 기능과 건립상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2호, 1995. 2